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은 의료진...9월까지 전국민 1차 접종

다음달부터 요양병원 입소·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19~64세 성인 순 백신 종류 선택 안되고 거부시 후순위로...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원하는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접종 거부자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방역체계 유지 ▲중증 진행 위험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순서를 정했다.

접종 순서를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 접종되는 만큼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를 순차 확대 전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추가 설립한다.

1분기에 백신 접종을 받는 코로나19 의료진은 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종사자 등 78만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된다.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요양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방문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명도 접종을 받는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명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명이 접종받는다.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약 38만명도 2분기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어 7월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된다.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신속함'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분기부터는 필수적인 공무원·중요한 경제활동으로 긴급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 도래 전, 즉 11월 전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광주 서구 안대목고교에서 28일 오전 신도와 그 가족이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180개국 중 33위...3년간 18계단 상승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OECD 37개국 중엔 23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51→45→39→33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한해 사이 4계단 올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공동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88점)가 차지했다.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77점·11위)과 일본(74점·19위)이 지속해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고 TI는 설명했다.

앞선 순위에 북유럽·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

들이 대체로 포진한 가운데 소말리아와 남수단(12점·공동 179위), 시리아(14점·178위)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공민주공화국·아이티와 함께 18점을 받아 170위였다.

국가청렴도를 가능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분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상승은 공무원의 사익 목적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보는 배탈스만제단의 지속가능지수(SGI-62~70점), 정경유착 등 정치 부패를 따지는 정치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PRS-54~62점), 부패·뇌물 등을 평가하는 국제경제개발원(IMD)

의 국제경쟁력지수(54~57점) 등 세부지표의 개선 때문이다.

다만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과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EIU)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C는 평균과 13점, EIU는 12.4점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 부패를 보는 PRS는 2012년 이후 정체됐다가 2019년부터 점수가 오르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 6.1점 낮다.

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나아지지 못하거나 도리어 나빠진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국 최초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준다

중기 35개사 대상...출산휴가자 1명당 건보료·퇴직적립금 84만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상화환경 부문 신규 사업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휴가기는 제외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임산부 1인당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휴가를 간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8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1년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고, 해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신청 순 35개사에 대해 지급한다.

해당기업은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광주시는 선정된 기업이 출산휴가고용유지의 무사함을 이행하고 자동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포함) 보장, 모·부성권 노동법률 준수 등을 적극 실천하면 노무컨설팅 등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8일 미일 정상 첫 통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미국시간 27일) 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이뤄진 첫 통화다. 이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이뤄졌고 3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정책 문제와, 미국과 일본이 함께 직면할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을 논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cornerstone·코너스톤)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양 정상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확장 역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파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투자 하실분 2억 이상

경매 낙찰된 특수물건
급매 / 부도직전 물건
경기 / 수도권 물건
수익률 좋음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1. 1. 28.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액 금750,000,000원을 금2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6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유상소각(액면가액)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주를 1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주식회사 동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02호
(왕지동, 거형빌딩)
대표이사 김용진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온앤(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세종건설(이하 "을"이라 함)은 2021년 01월 25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게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1월 29일
갑 : 주식회사 온앤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672번길 18-18(지아동)
대표이사: 이 중 국
을 : 주식회사세종건설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36, 2층(산동동)
대표이사: 홍 철 희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1년 1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총액 금 4,700,000,000원을 금 3,7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1주의 금액 금 500원의 보통주 9,400,000주 중 2,000,000주를 유상소각하여 7,40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시일(일월)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1년 1월 29일
주식회사 세원(이하 "갑")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로 556
대표이사: 김재욱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1. 1. 26.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액 금750,000,000원을 금2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유상소각(액면가액)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75,000주를 2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우석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장차길 37
대표이사 정광숙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1. 1. 28.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0원을 금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0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유상소각(액면가액)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일월)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주식회사 송공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02호
(왕지동, 거형빌딩)
대표이사 김용진

상행안내

1월 31일(일)
▲광주K산악회 1월 31일(일)
경기도 안성, 칠장산, 칠현산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박용희(761177-XXXXXX)
• 최후주소: 광양시 공영로 10, 101동 1002호 (중흥, 금양아파트)
피상속인 양 박용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699호로 신청하여 2021년 1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29일
• 상속인: 1. 이경용(810905-XXXXXX)
2. 이주영(110620-XXXXXX)
3. 이주희(110620-XXXXXX)
청구인 2, 3 범청대리인(천진자부) 이경용 상속인 1, 2, 3의 주소 : 광양시 공영로 10, 101동 1002호 (중흥, 금양아파트)
• 신고기간: 2021. 1. 29. ~ 2021. 4. 9.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1. 이경용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양희재(411133-XXXXXX)
• 최후주소: 광주 남구 화산로31번길 10, 101동 1104호(진월동, 서리아파트)
피상속인 양 양희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3035호로 신청하여 2021년 1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29일
• 상속인: 양병수(710325-XXXXXX)
광주 남구 화산로31번길 10, 101동 1104호(진월동, 서리아파트)
• 신고기간: 2021. 1. 29. ~ 2021. 4. 9.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양병수의 주소

516.7m 덕성산519m&금복정맥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 07:35, 롯데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인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 함.

1. 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476(공)
2. 분묘가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5. 유언분묘: 연고자의 합의로 개장처리
6. 유언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제분묘에 의거 연고의 개장
7. 안치장소: 전남 해남군 고천읍무궁원
8. 안치기간: 화장 후 봉안 10년
9. 신고자: 박갑석 외 1인(010-7305-6700)
10. 신고자구비서류: 연고자 명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 등본, 묘지신고서 등

2021년 1월 29일
공고인: 백갑석 외 1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